

## 1992년 2월 20일 제123회 중의원 예산위원회

○ 일시: 1992년 2월 20일(목)오전 10시 1분 개의

○ 발언자:

- 히노 이치로(日野市朗) 의원(일본사회당 소속 중의원 의원, 우정대신)
- 하토야마 구니오(鳩山邦夫) 국무대신(정치가, 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, 중의원 문교위원장, 문부대신, 노동대신, 중의원 운영위원장, 법무대신, 총무대신, 내각부 특명담당대신(지방분권개혁), 민주당 부대표, 재판관소추위원회 위원장, 중의원 지방창생에 관한 특별위원장)
- 미야자와 기이치(宮澤喜一) 내각총리대신(대장성 관료, 정치가, 자민당 소속 참의원 의원, 경제기획청 장관, 중의원 의원, 통상산업대신, 외무대신, 내각관방장관, 부총리, 대장대신, 우정대신, 농림수산대신, 재무대신, 자민당 총무회장, 자민당 총재)

○ URL: <https://kokkai.ndl.go.jp/#/detail?minId=112305261X00519920220&spkNum=389&current=38>

○ 해제(개요 및 특징)

히노 의원은 어제 이토 의원이 질의한 **중군위안부** 문제를 상기하면서,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위해 국내에서 정치·외교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함. 하토야마 대신은 **위안부**에 관한 일본 내 교과서 수록 현황에 대한 어제의 발언을 반복함.

○ 주요 내용 번역

- ▷ **미야자와 내각총리대신**“(전략)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제2차 대전에서, 특히 아시아태평양의 여러 나라와, 중국과도 그랬습니다만, 그런 관계였다는 것, 우리로서는 쉽게 잊을 수 있는 입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, 피해당한 사람들은 좀처럼 쉽게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 역시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다, 그러한 의미의 지적이라면,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”
- ▷ **히노 위원**“(전략) 이번에 총리께서 한국에 가서서 전쟁 전, 전쟁 중의 일에 대해 사죄하고 오신 것 같고, 그리고 시정방침에서도 사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저는 이러한 모습은 좋다고 생각합니다만, 문제는 사죄하며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, 이것은. 지나간 역사 속에 쌓인 것이 있고, 그리고 일본에 대해 여러 가지 굴절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. 실제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알 수 있도록, 정말로 일본이 사죄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모습이어야 한다고

생각합니다. 여기서도 이토 히데코 의원이 **중군위안부**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나 저는 일본인이 과거에 대한 반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국내 정치, 그리고 외교적인 행동이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(중략) 그러나 이 점에서 제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 해왔던 나쁜 일에 대한 기술이 점점 교과서 검정 (과정-역사)에서 사라지더군요. 난징학살(南京虐殺)이 사라지고 동고(東郷) 원수가 등장했다든가.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만, 저는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는, 그러한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교과서 검정, 역사교과서 검정 방침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십니까? 어떻습니까?”

- ▷ **미야자와 내각총리대신** “그것은 반드시 문부대신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만, 1982년이었던가요. 스즈키(鈴木) 내각 당시 저는 관방장관이었는데,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일어나서 꽤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만, 「교과서 검정기준」이라는 것을 개정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「학습지도요령」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 교과서를 국가가 만들지 않고 민간이 만들지만, 「학습지도요령」까지 상당히 바뀌어서, 지금 말씀하신 것은, 격세지감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. 문부대신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?”
- ▷ **하토야마 국무대신** “(전략) 이른바 1982년 이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, 그런 과정 속에서 관방장관 담화, 혹은 「교과서 검정기준」을 개정하고 그 뒤에 문부대신이 담화를 낸 것입니다. 교과서 내용은 많이 바뀌어, 실제로 조선반도와의 관계도 강제수용이라든지 창씨개명(創氏改名)이라든지, 신사참배의 강제가 서술되었습니다. 어제 이토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, **중군위안부**에 대해서도 이미 고교 역사교과서 중 한 출판사가 기술하고 있습니다.”